

VBS 주제 해설

1. 온전함, 주님의 명령.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사전은 ‘온전(穩全)하다’를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완전(完全)’을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으로 정의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이런 정의에 기초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서 너무나 거리가 먼 자신을 발견하여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유다 왕 아사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영적 분별력과 종교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했다(왕상 15:14)고 평가됩니다. 온전함은 완전한 무죄함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흠결이 전혀 없는 완전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순종적 삶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능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자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완전함을 성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 받았던 다윗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시 18:32).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성도를 양육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2. 온전함에 이르는 길: 성경

주님의 명령인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명령'이면서 동시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죄로 인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던 인간성과 하나님과의 막힘없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파괴 현상은 소위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간성의 파괴 또는 건강한 관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확신해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유일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3. 청소년 VBS <THE ANSWER: 성경이 답이다>

우리는 성경만이 청소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진가를 알아보았던 다윗의 고백이며 주님의 사도인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그분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도 자신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청소년들이 온전함에서 떠나 하나님 보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흔들립니다(딤후 3:2). 청소년들에게 세상의 소리가 더 그럴 듯하고 커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번 청소년 VBS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성경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며 답이라는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성경'이라는 키워드에 흠뻑 빠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도전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유일한 정답인 성경!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진리를 전하며 이 진리는 죄와 거룩을 깨닫게 함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성경!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를 아는 인생은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 온전하게 하는 성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알게 합니다.

성경(말씀)은 기도와 함께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방편'이라 불립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이번 VBS는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각기 다르며,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